번역학연구
2008년 여름 제9권 2호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김 정 우
(경남대)

1. 머리말

한국어의 어문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1] 한글 맞춤법은 한글 자모를 가지고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표기하는 방법이고, 표준어 규정은 동일한 지시의미를 가진 둘 이상의 단어 중에서 어느 하나를 표준으로 결정하는 표준어 사정(査定) 원칙과 표준발음법을 체계화한 규칙의 집합이다. 다음으로 외래어 표기법은 한글 자모를 가지고 한국어에 들어온 외래어를 바르게 표기하는 방법이고, 로마자 표기법은 로마자 자모를 가지고 한국어의 단어를 바르게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들 네 가지 어문 규범 가운데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전적으로 한국어와 관련된 규범인 반면,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표기 대상과 표기 수단이 서로

* 이 논문은 2007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1) 이들 네 가지 어문 규범을 통틀어 국어의 어문 4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www.kci.go.kr

다르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가지 규범과 차별성을 보인다. 즉,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한글 자모로 표기하는 방법이므로 표기 대상도 한국어(발음 상태의 표준어)이고 표기 수단도 한국어(한글 자모)이며,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의 대상과 결과가 모두 한국어이다. 이에 비해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단어 중에서 한국어의 어휘 체계에 편입되어 사용되는 외래어를 한국어의 한글 자모로 표기하는 방법이므로 표기 대상이 근원적으로 외국어이고 표기 수단이 한국어(문어)이며,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 단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이므로 표기 대상이 한국어이고 표기 수단이 외국어(로마자=문어)가 된다.[2)]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서 나타나는 표기 대상과 표기 수단의 이와 같은 차이는, 우리에게 원천언어(SL)의 텍스트를 목표언어(TL)의 텍스트로 옮기는 번역 과정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서 양자 사이의 이러한 유연성(有緣性)을 합리적으로 이론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단순히 한국어 어문 규범의 하위 집합으로만 보아왔던 기존의 문제 접근 태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관점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의 네 가지 어문 규범에 속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번역 과정(또는 결과)과 관련된 특수한 표기 규범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려면,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본고는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을 일종의 번역 과정(또는 결과)으로 규정하고[3)], 이를 근거로 이들 두 규범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해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규범의 구체적인 개별 조항에 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바, 이들 현행 규범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본고의 이차적인 목표가 된다.

---

2) 앞으로 제3장의 논의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위에서 말한 표기 대상과 표기 수단이 곧바로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3) 그렇다고 거시적 관점, 곧 국어 어문 규범의 하위 집합으로서 가지는 위상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밝혀지겠지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적절한 혼합 적용이야말로 이들 두 규범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태도라는 것이 필자의 현재 생각이다.

www.kci.go.kr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그동안에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론적인 논쟁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된 쟁점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제시한다.[4] 본고의 핵심이 되는 제3장에서는 이들 두 규범과 번역 과정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을 번역의 관점에서 각각 규정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 우리의 논의가 갖는 의의와 실제적 효용성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

2.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논의의 핵심 쟁점

2. 1.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인상적인 비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으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원음 혹은 원지음(原地音)[5]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원음을 지나치게 추종한다는 비판이다. 전자는 이들 단어가 분명히 외국어에서 기원한 것인데도 외국어답지 않다는 것이고, 후자는 이들 단어가 한국어의 일부인데도 한국어답지 않다는 것이다.[6] 현행 외래어 표

4) 연구사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 목록으로 대체한다. 지금까지 이들 표기법을 번역의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유명우(2000)는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연구가 한국 번역학의 과제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이런 관점의 논의는 거의 없다. 김정우(2002)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의 음성 번역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현재 필자의 입장과는 이론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다.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는 양병선(2000, 2001) 정도가 있을 뿐이다.

5) 국어에 들어오기 이전의 발음, 곧 외국어로서의 발음을 뜻한다.

6) 얼마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orange'의 표기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이 단어는 [오렌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바꾸어서라도 원음에 가깝게 [어륀지]처럼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 양론이 비등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마치 15세기 중엽에 '中國'을 '듕귁'으로 표기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연상시키는 처사라고 했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남의 나라 말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인 처사라고 했다.

www.kci.go.kr

기법을 둘러싼 이상과 같은 핵심 쟁점은 한마디로 ‘원어의 발음을 충실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어의 발음 양상에 충실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7] 외래어 표기법을 두고, 언뜻 서로 모순된 주장처럼 들리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어의 전체 어문 규범 체계 안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위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미시적으로 보면 외래어 표기법 자체의 목표와 대상, 방식 등이 효율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에 대한 수용 여부는 외래어 표기법 자체의 분석과 아울러, 외래어 표기법을 둘러싸고 있는 어문 4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연후라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다.[8]

2. 2.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논란은 비교적 선명하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표기 대상을 한국어의 발음으로 할 것(전사법)인지 아니면 한글 표기(전자법)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표기 수단의 위상을 로마자로 볼 것(Romanization)인지 아니면 영문으로 볼 것(Englishization)인지의 문제이다. 전자는 로마자 표기법의 효용, 즉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고, 후자는 로마자 표기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로마자 표기법의 효용이나 목표는 모두 로마자 표기법의 존재 의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문제에 대한 접근은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에 대한 접근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9]

---

7) 김세중(1996: 167)의 지적대로 ‘외국어답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음성학과 거리가 있는 비전문가인 반면에 ‘국어답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음성학의 전문가라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다.

8) 세부적인 문제, 예컨대 된소리의 사용 제한 등은 여기서 일단 논외로 한다. 이를 포함한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9) 기타의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논의된다.

www.kci.go.kr

현재 이들 표기법을 둘러싼 위와 같은 논쟁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을 뿐더러, 언뜻 지루한 소모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 쟁점을 재단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어지는 제3장에서 번역의 잣대를 끌어들여 관점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3.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규정

3. 1. 언어의 접촉과 번역 양상 -영(零) 번역, 음성 번역, 의미 번역-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번역의 관점에서 조망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10]

첫째, 이들 표기법을 한국어 어문 규범의 관점에서만 논의하던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반성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들 표기법이 한국어의 어문 규범에 속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와 같은 접근 태도는 이들 표기법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 이들 표기법 특유의 사정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 대상과 표기 결과를 원천언어와 목표언어로 나누어서 정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이들 표기법의 효용은 통역이 아니라 번역에 있다.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결과는 구어와 구어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어와 관련된 표기 규범이라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인 번역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들 표기법도 일정한 의도를 갖는 목표지향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들 표기법에 대한 비판과 평가에는 구체적인 독자층 내지 사용자층 등 실제적인 사용 현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이들 표기법에 대한 논의가 이론지향적 관점에서 실용지향적 관점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10) 앞으로 3.2.1항에서 밝혀지겠지만, 사실 외래어 표기법 자체는 번역 현상이 아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두 가지 주제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www.kci.go.kr

교역이나 종교의 전파 등의 이유로 두 언어 사이에 접촉이 일어나면, 이들 언어 상호 간에 번역 현상이 발생한다.[11] 일단 접촉 대상 언어(이하, 외국어로 지칭함)의 단어를 그대로 들여와서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 차용에 해당하며 번역의 잣대로 본다면 영 번역(zero translation)이 된다.[12] 다음으로 외국어의 단어를 자국어로 표기하는 단계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외국어 단어에 대한 음성 번역(phonetic translation)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외국어 단어가 이 단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국어의 문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 단계와 동시이거나 혹은 이후에 외국어의 단어를 자국어 단어로 대치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외국어 단어에 대한 의미 번역이 된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 이르면 해당 외국어 단어의 발음 정보는 소실되고 만다. 이런 방식으로 외국어 단어를 대체한 자국어 단어에는 이 단어의 기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13]

그런데 외국어 단어 가운데서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근본적으로 의미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번역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음성 번역 단계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논의하게 될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표기 대상은 주로 이와 같은 고유명사가 될 것이다.

3. 2. 외래어 표기법의 성격

3.2.1. 번역 관점의 도입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시적 관점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번역의 과정 내지 결과로 본다면, 이 경우의 번역은 통상적으로 외국어 단어(발음, 구어)를 원천언어(SL)로 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의거한 해당 단어의 표기(철자, 문어)

---

11) 여기서 논의하는 외래어는 이른바 필요적 동기(need-filling motive)에 의해 받아들인 단어로 한정한다. 위세적 동기(prestige motive)에 의한 외래어 수용은 논외로 한다. 민현식(1999: 356-359) 참고.

12) 형태론에서 말하는 영 파생(zero modification)의 개념을 번역(학)에 원용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 신[靴](명사) → 신다(동사), 띠[帶](명사) → 띠다(동사), 배[腹] → 배다[孕] 등

13) 유명우(2000: 237)에서는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용례를 ‘sports’(영 번역), ‘스포츠’(음성 번역), ‘운동’(의미 번역)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www.kci.go.kr

를 목표언어(TL)로 하는 음성 번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외래어의 표기 과정에 대한 사실적인 관찰이 되지 못한다. 외래어의 표기가 결정되는 다음의 과정을 잘 살펴보자.[14]

(1) 외국어 원어의 발음(a) → 해당 외래어의 발음(b) → 해당 외래어의 표기(c)

우리는 보통 (c)를 번역의 결과로 생각하기 쉬운데, 언어 간의 접촉에 의한 실제 번역 현상은 한국어의 화자가 외국어 원어를 사용하는 외국어 화자를 만나서 해당 단어(구어, 발음)를 듣거나 외국어 텍스트를 읽으면서 해당 단어(문어, 철자)를 보고 나서 최초로 한국어의 문맥에서 재생한 (a) → (b) 단계에서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15]

여기서 우리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개념적인 차이를 떠올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래어는 외국어 가운데서 한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인 단어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정의를 따른다면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대상이 되는 단어는 (b)이지 결코 (a)가 될 수 없다. (a)의 발음과 표기는 번역이 일어나기 이전의 단계, 곧 한국어와 전혀 무관한 외국어 체계 내부의 문제이므로,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논의에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규범이지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규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b) → (c) 과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발음의 문자화 과정이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법은 발음 상태의 외래어를 문자로 표기하는 표기 규범일 뿐 해당 외래어의 발음을 규정하는 발음 규범이 결코 아니다.[16]

---

14) 이홍식(2001: 136-144)에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특징을 원음 중심주의와 표기 중심주의라는 개념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도 일정 부분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논의에 번역이라는 관점을 도입한 것은 필자의 독창적인 발상임을 밝혀둔다.

15) 다시 말해서 (a) → (c) 혹은 (b) → (c)는 번역 과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16) 앞서 2.1에서 언급되었던 '외국어답지 못한 표기'라는 비판은 결국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 기인하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말 그대로 '외래어' 표기법이지 '외국어' 표기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www.kci.go.kr

이제 위에서 B(외국어)→A(자국어) 번역 현상의 결과를 문자화하는 규칙의 집합으로 파악한 외래어 표기법의 세부 사항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자.

첫째, 여기에 나타난 번역 현상의 본질 문제이다. 여기서 원천언어(SL)는 외국어 단어인데, 이때의 단어는 문어(철자 상태)도 될 수 있고 구어(발음 상태)도 될 수 있다. 우리는 외국어를 수용할 때 해당 단어의 발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어의 언중(言衆)이 외국어를 접할 때 발음보다 표기를 매개로 하는 경우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17] 이는 한국어의 언중(言衆)이 그 나름대로 외국어 원어의 철자를 읽는 규칙을 암묵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18] 이러한 현상은 특히 외래어의 사용 빈도가 높은 식자층의 언어생활을 관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필요한 외국의 지식이나 문물을 접할 때 직접 외국인과 만나는 경우보다는 문자 텍스트를 통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외래어 문제의 논의에서 원어의 발음과 함께 원어의 철자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목표언어(TL)는 한국어의 구어(발음)이다. 설령 어떤 번역자가 외국어 텍스트를 읽고 우리말로 옮기면서 거기 나온 외국의 인명과 지명을 직접 문자화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표기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발음(묵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목표언어를 국어 구어로 간주하는 우리의 현재 논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둘째, 이 번역 행위의 목표 문제이다. 그것은 한국어의 화자들 사이에서 해당 외국어 단어를 사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욕구의 성공적인 수행이다. 번역되지 않은 외국어 단어가 차별적 언어 능력을 가진 한국어 화자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발음 상태의 외래어를 최종적으로 문자화하는 외래어 표기법은 표기자와 독해자가 모두 한국어 화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외래어 표기법에서 한국어 화자의 사용 편의를 위해 표기의 간결성과 체계성을 추

17)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홍식(2001: 138)에서 지적한 외국 배우의 인명 [디캐프리오](외래어 표기법상의 표기 형태)와 [디카프리오](언중의 일반적인 표기 형태)의 공존은 자못 흥미롭다.

18) 로마자 표기법에 제시된 국어 음소와 로마자 자모의 대응 체계도 일정 부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의 논의에서 이 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구한 것(임동훈 1996: 51)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조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외래어 표기법이 관여하는 표기 대상 단어의 범위 문제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를 포함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어화하지 않은 외국의 인명과 지명이 외래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김하수 1999: 251)과, 현실적으로 한국어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외국의 인명과 지명을 외래어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임홍빈 1996: 5, 이홍식 2001: 124)이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외국의 인명과 지명을 필요적 동기에 의해 국어로 들여온 외래어로 간주하고자 한다.[19] 이는 조금이라도 번역 경험이 있는 번역자라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명제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외신 기사나 뉴스 원고에는 외국의 인명과 지명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잠재적 외래어로 간주하는 이홍식(2001: 125)의 견해에 동의한다.

넷째, 외래어 표기법을 포함하는 한국어 어문 규범의 전반적 체계 문제이다. 현재 외래어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의 하위 규정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20]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표준어의 발음 형태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문자화하는 규정이 한글 맞춤법이듯이, 외래어의 발음 형태도 외래어 표기법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문자화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되는 표준어의 발음 형태는 표준어 규정의 제2부 표준 발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대상이 되는 외래어의 표준 발음 형태는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표준 발음법 조항의 그 어디에도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외래어를 국어에 완전히 동화되어 고유어나 한자어와 마찬가지인 국어 단어로 보아서 별도의 발음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면, '외래어는 별도로 사정한다'고 규정한 표준어 사정 원칙 제2항도 삭제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 기원을 막론하고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단어라면 모두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

19) 이는 기본적으로 "국어 문맥에서 외국어 단어를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 글로 적는 것으로 이미 동화의 단계는 시작된다."라고 한 임홍빈(1996: 5)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원어의 발음이나 철자 자체는 정상적인 번역 이전 단계인 영 번역(단순 차용)으로 본다. 영 번역 단계의 어형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20) 한글 맞춤법 총칙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www.kci.go.kr

는 현대 서울말로 한다"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굳이 어휘 종별에 따른 차별을 둘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21]

3.2.2. 현행 외래어 표기법 검토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제1장에서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다음, 제2장에서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비롯하여 [표 2] 에스파냐어와 한글 대조표에서부터 [표 19] 러시아어와 한글 대조표에 이르기까지 18개국 자모[22]와 한글 대조표를 표기 일람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 제3장에서 [제1절] 영어의 표기에서부터 [제21절] 러시아어의 표기에 이르기까지 21개 언어의 표기 세칙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 인명과 지명의 표기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앞의 3.2.1항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 규정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상 기본 원칙의 골자를 아래에 인용해 본다.

(2)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1항은 외래어의 표기에 한글 자모 이외의 다른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인데, 언어의 접촉으로 인한 번역의 결과를 외래어로 보는 우리의 입장[23]에서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래어란 이미 번역(B→A) 과정을 거쳐 생성된 단어이므로 한국어화한 단어이며, 따라서 한국어의 음소 체계와 음운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제2항은 표기법의 일반 원리를 천

21) 다만 완전하게 국어에 동화하기 이전까지 이른바 잠재적 외래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외래어의 표준 발음을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국어의 음운 규칙과 외국어의 음운 규칙이 다른 경우, 예컨대 영어의 표면 음성형에서 허용되는 /n/과 /l/의 연쇄가 국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쪽 언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규칙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해주어야 한다.
22) 이들 언어는 철자가 곧 음성기호를 표시하는 셈이다.
23) 앞의 3.2.1항의 (1)에서 (b) 참고.

www.kci.go.kr

명한 규정으로 이해되는데, 외래어 표기법의 위상을 외래어 표준 발음의 문자화 규칙 체계로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불필요하다. 제3항은 외래어가 한국어화한 단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규정으로 이른바 어말 자음 중화 규칙의 적용을 명시한 규정이다.[24] 제4항은 표기의 체계성과 간결성을 위해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인데, 제2항에서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 논리에 입각해서 역시 불필요하다. 한국어 화자가 해당 단어의 발음에 된소리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런 된소리를 적을 수 있는 부호가 한글 자모에 마련되어 있는 이상 굳이 된소리 표기를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언어에 따라 된소리의 표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25] 제5항은 외래어의 표기가 실제 사용 양상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따라서 타당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26]

표기 일람표와 표기 세칙에서는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표기 용례에서 의미 번역이 가능한 단어를 일부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단어는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이므로 제외해야 한다. 합성어의 표기에서 단어의 구조를 표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하다.[27]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어에 담긴 단어 구조 등의 정보가 아니라 외래어가 되는 과정에서 획득한 발음 정보이기 때문이다.

---

24) 어말 자음중화 규칙이 국어의 모든 단어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조항도 앞의 제2항처럼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외래어 나름의 특수성이 숨어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말 자음중화 규칙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밭' - '밭에서' - '밭만'처럼 받침의 기본형을 살려서 표기하지만,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커피숍' - '커피숍에' - '커피숍만'처럼 받침의 기본형(원어의 /p/에 대응되는 'ㅍ')을 밝혀 적지 않는다. 외래어의 생성 과정에서 이미 받침의 기본형이 /ㅍ/에서 /ㅂ/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5) 언어에 따라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는 것은 원천언어의 유형에 따라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표기 세칙에서 로만스 제어(諸語)나 러시아어 등의 파열음은 된소리로 적고, 영어의 파열음은 거센소리로 적으면 된다.

26) 이러한 의미에서 외래어 발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는 '표준' 외래어의 결정에 대단히 중요하다. cf)『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2001년, 국립국어연구원.

27)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헤드라이트'(← head-light)와 같은 표기의 경우에는 '어중에 오는 영어 음소 /l/을 /ㄹㄹ/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제6항과 상충되는 부적절한 조항이기도 하다.

www.kci.go.kr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의 표기 원칙에서는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눈에 뜨인다. 우선 중국과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원지음과 가깝게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표기 관행에 비추어 한국식 한자음(東音)에 근거한 표기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원음에 근사하게 표기한다고 해도, 성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표기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한국 한자음을 병기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28] '태평양'(← Pacific Ocean)의 표기 관행을 인정하면서 한국식 한자음 표기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선뜻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 한자음식 표기는 의사소통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번역 고유의 기능에 비추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화용적 명시화(pragmatic explicitation, Mona Baker 1998: 83)이다. 이것은 목표언어권 독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원천언어권의 강이나 산 등 자연 지형이나 지물의 이름을 번역할 때 이와 관련된 정보를 번역어에 덧붙여주는 표기 방식이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지명에 포함된 일반 의미 정보를 다음과 같이 잉여적으로 표기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29]

(3.a) 주장 강(珠江), 도시마 섬(利島)
(3.b) 리오그란데 강(Rio Grande), 몬테로사 산(Monte Rosa)

3. 3.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3.3.1. 번역 관점의 도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시적 관점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번역의

---

28) 최근 인문학 관련 학계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007년 10월 23일자 연합뉴스 보도 기사 '어째서 집안(輯安)이 아닌 지안(集安)인가?' 참고. 우리의 논의와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원지음주의를 고수하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서 표기하고 발음하더라도, 중국인들은 성조가 사라진 해당 단어의 표기를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표기가 표상하는 단어는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정체불명의 단어라는 것이다.

29)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인명, 지명 표기 원칙의 제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특히 제4항과 제5항 참고. 한편 임동훈(1996: 58)의 지적처럼 제2항에서 자립어 역할이 의심스러운 '해(海)'는 제외해야 한다. 훌륭한 자립어인 '바다'를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www.kci.go.kr

과정 내지 결과로 본다면, 이 경우의 번역은 한국어의 단어(발음, 구어)[30]를 원천언어로 하고 로마자로 표기된 형태(철자, 문어)를 목표언어로 하는 음성 번역으로 간주된다.

(4) 한국어 단어(발음, 구어) → 로마자 표기 형태(철자, 문어)

로마자 표기 과정에 대한 위 (4)와 같은 성격 규정은 어느 정도 분명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이 과연 번역인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어사(國語史)에서 위 (4)와 대단히 유사한 사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한자 차자(借字) 표기이다.

(5.a) 善花公主主隱(선화공주님은)[31]
(5.b) Gyeongsangnam-do(경상남도)

위 (5.a)는 한자를 빌려서 괄호 안의 우리말을 표기한 것으로 믿어지는 자료이고, (5.b)는 로마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자료이다. 위의 두 자료는 모두 외국의 문자를 빌려서 우리말 단어를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5.a)는 번역이 아닌 (차자) 표기라고 부르고, (5.b)는 (음성) 번역이라고 부른다.[32]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는 이들 표기 형태가 통용되는 사용 환경이다. 전자는 한국어를 말하는 언어 환경에서 사용된 반면, 후자는 외국어를 말하는 언어 환경에서 사용된다. 즉, (5.a)는 한국어의 문맥에서 한국어 화자(독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용된 반면, (5.b)는 로마자가 표기 수단으로 통용되는 외국어의 문맥에서 외국어 화자(독자)들 사이의 의사

30) 물론 전자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원천언어를 한국어 문어(철자)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이 표기법의 정식 명칭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31) 향가 서동요의 일부. 앞의 4자(善花公主)는 음독으로, 다음 1자(主)는 훈독으로, 마지막 1자(隱)는 음독으로 읽는다.
32) 야콥슨의 정의에 따르면, '언어 내 번역'과 '기호 간 번역'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번역은 가장 일반적인 번역 행태인 '언어 간 번역'을 뜻한다.

www.kci.go.kr

소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는 한자를 빌린 우리말의 표기이지만, 후자는 로마자를 빌린 우리말의 번역이 되는 것이다.

이제 위에서 A→B 번역 과정으로 정의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관련 사항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자.

첫째, 여기에 나타난 번역 현상의 본질 문제이다. 여기서 원천언어는 한국어 단어(발음/구어 혹은 철자/문어)이고 목표언어는 로마자 표기 형태(철자, 문어)이다. 원천언어가 구어인 경우는 이 규범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되고, 원천언어가 문어인 경우는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이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는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체재를 전자와 같은 전사법(transcription)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후자와 같은 전자법(transliteration)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다음에 논의되는 번역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이 번역 행위의 목표 문제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로마자가 표기 수단인 언어권의 화자(독자)들 사이에서, 로마자로 표기된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욕구의 성공적인 수행이다.[33] 이때 이들 외국인 화자(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해당 국어 단어의 음성 정보인데, 그것은 표기 대상이 되는 한국어 단어가 인명이나 지명 따위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 과정은 해당 한국어 단어의 발음을 알거나 철자를 읽을 줄 아는 한국어의 화자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어 화자들에게, 그네들이 표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로마자를 이용하여, 그 단어의 음성 형태를 알려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34] 그런데 이와 같이 로마자 표기를 활용한 한국어 알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의 한국어 알리기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표지판이나 관광 안내문, 문화재 안내문 등에 들어 있는 로마자 표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된 로마자 표기법의 효용성을 만날 수 있다. 이때 로마자 표기의 수혜자(독자)는 우리나라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다. 다른 하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국어 알

33) 교통표지판에 나타난 한자 병기 양상(예: 世界盃體育場 [월드컵 경기장])을 보면 음성 정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표의문자인 한자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34)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국어를 아는 외국인 화자가 표기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www.kci.go.kr

리기로, 우리 문화를 외국에 홍보하는 책자에 들어 있는 로마자 표기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로마자 표기법의 효용성을 만날 수 있다.[35] 이때 로마자 표기의 수혜자(독자)는 외국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자 표기법의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어느 쪽을 택하든 외국어 화자(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우리말의 음성 정보라는 사실이다. 그 이상의 정보(형태 정보, 의미 정보 등)는 한국어와 한글을 학습하여 그네들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표기자와 독해자가 서로 다른 언어권 화자(독자)에 속한다는 사실이다.[36] 이상의 두 가지 특징은 실제로 로마자 표기법의 체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37]

셋째, 로마자 표기법의 표기 대상이 되는 우리말 단어의 범위 문제이다. 예컨대 한국어와 한글을 외국어 화자(독해자)들에게 소개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38]를 제외하면, 로마자 표기법의 표기 대상 단어는 일차적으로 의미 번역이 불가능한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가 된다.

3.3.2.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검토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39]은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과 제2장 표기 일람 및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표기의 기본 원칙을 보면 다음의 두 가지이다.

---

35) 이익섭(1997: 9-10)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활동한 초기 선교사들이 한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로마자만 사용하여 한국어 문법서를 기술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36) 정태충(2005: 31-34)에서는 표기자와 독해자를 각각 생산자와 소비자로 지칭하고 있다.

37) 이 문제는 3.3.2항에서 다루게 된다.

38) 위의 각주 34)번과 같은 사례이다.

39) 현재 준용되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로 공포되었다. 로마자 표기법 개정의 역사와 경위에 대해서는 김완진(2007)과 정희원(1997) 및 김세중(2000)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이전에 사용되거나 제안되었던 각종 로마자 표기법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유만근(2000)을 참고할 수 있다.

www.kci.go.kr

(6)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위 제1항에서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자모 사이의 대응인 전사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이 문제는 표기의 복원력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쟁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사법을 택하면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말 단어의 실제 발음에 가까운 음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해당 단어의 원래 철자로 복원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전자법을 택하면, 원래의 한글 철자로 복원하기가 용이하지만, 우리말의 음운 규칙과 다른 체계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에게 해당 단어의 실제 발음과 거리가 있는 음성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서로 대립되는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자 표기법의 실제적 효용성이고, 우리는 앞서 3.3.1항에서 이 번역 행위의 목표를 논의하면서 이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우리말의 음성 형태에 관한 것임을 확인한 바 있었다.[40] 그렇다면 전자법을 버리고 전사법을 택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은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41]

제2항은 표기의 간결성을 위한 표기 원칙으로, 현행 표기법에서는 붙임표(-) 이외의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원칙은 사실상 반달표와 어깻점을 표기에 사용했던 이전 표기법과의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42] 이는 정보화 시

40) 일례로 전홍식(2004: 220) 등에서는 '속리산'을 현행 로마자 표기대로 적으면 'Songnisan'이 되어 원래의 철자 '속리산'과 멀어져서 불편하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과연 [송니산]이라는 발음인지, 아니면 '속리산'이라는 철자인지를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이런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외국인들에게는 철자의 복원 가능성이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철자의 복원 가능성은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41) 일부에서는 로마자 표기법을 일반인용과 전문가용으로 나누어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양병선 2000: 146 각주 2), 일단 어문 규범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제3장의 8항)에서도 학술 논문 등의 특수한 경우에 전자법 표기가 허용되어 있다.

www.kci.go.kr

대에 컴퓨터 사용 편의를 위한 것으로 언어 정책에 사회, 정치, 경제, 역사 현상 등 사회언어학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론(양병선 2000: 147-148)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표기 일람에서는 한국어 모음(이중모음 포함)과 자음 음소 대 로마자 자모의 대조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 대조일람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 표기를 없앴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에 꼭 필요한 음소 대립을 가급적 유지하여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최대한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이다.[43]

우선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 표기 문제부터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외국인들에게 우리말 단어의 음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외국인들이 지각할 수 있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 표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외국인의 시각에서만 다룰 수 없는 사정이 있는바, 그것은 바로 이 로마자 표기법의 사용자(표기자)와 독해자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로마자 표기법의 표기자는 한국어를 말하는 한국인인데, 한국인 표기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유성과 무성의 구분에 의한 음성 변이형까지 표기에 반영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44]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유성과 무성의 변이형을 표기하지 않기로 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태도는 온당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최대한 보여주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앞서 3.3.1항에서 논의한 번역 행위의 목표에 이미 담겨 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국어 알리기에 소극적 방식과 적극적 방식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적극적 방식으로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면, 한국어의 음운 구조와 체계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로마자 표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극적 방식과 적극적 방

42) 종전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이들 구분기호(diacritic marks)를 인쇄의 편의상 생략할 수도 있었다. 그에 따라 구분기호가 생략되면 대립 음소들이 로마자 표기 상태에서 대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43) 구체적인 자모 배당 과정과 그에 대한 평가는 정희원(2000)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44) 일반적인 표기법에서는 변이음(allophones)을 표기하지 않는다. 이익섭(1997: 18) 참고.

www.kci.go.kr

식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의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포괄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며, 따라서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최대한 반영하여 표기하고자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기상의 유의점에서는 음운 변동의 처리와 붙임표의 용법 및 행정구역 단위와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 등의 표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붙임표의 기능부담량이 과도하다는 점이다.[45] 현행 로마자 표기법 체계 안에서만 해도 음절 구분(예: Hae-undae [해운대]), 행정구역 단위(예: Jongno-gu [종로구]), 인명(예: Song Na-ri [송나리]) 등에 사용되고, 일반적인 표기에서는 복합어 정보의 표시(예: double-date)에 사용된다. 로마자 표기 수요가 가장 높은 행정구역 단위에만 붙임표를 쓰도록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른 방도[46]를 찾아서 이 부호의 기능부담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연 지형지물명과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의 표기 문제인데, 표기법에서는 이들 이름에 담긴 일반 의미 정보(강, 산, 탑 등)를 무시하고 전체를 고유명사처럼 처리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말의 음성 정보라 해도, 의미 정보까지 알려줄 수 있다면 굳이 무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논의에서 '화용적 명시화'의 개념을 원용한 부가적 표기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개념이 로마자 표기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47]

---

45) 전홍식(2004: 228), 정태충(2005: 153-155) 참고.

46) 인명 표기도 기능상 음절 구분 표기와 동일하다. 로마자 표기에서 기능부담량이 그다지 높지 않은 가운뎃점의 사용을 대안으로 제안해 본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기계화에 소요되는 처리 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음절 단위의 전자법 체계를 제안한 정태충(2005: 14)에서는 음절의 첫 자소를 대문자로 표시하고 있다. (예: DokRipMun [독립문])

47) 본문 용례 (7)의 표기에서 부가 의미 정보를 이탤릭체로 표기한 것은 로마자 표기와 영문자 표기를 구분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이것도 일반인들이 로마자 표기를 영문자 표기로 오해하는 중요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전홍식 2004: 222)이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에 로마자 표기법이 극복해야 할 현행 표기법의 미비점 가운데 하나이다.

www.kci.go.kr

(7) Namsan *Mountain*, Hangang *River*

아직 논의되지 못한 쟁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현재와 같은 로마자 표기법의 철학을 버리고, 이를 영문자 표기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한 논의이다. 영문자 표기법의 주장자들은 영어가 이미 지구촌의 국제어로 자리매김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요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정신은 세계인을 상대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마자(=라틴문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리 국제어로서의 위상을 선점했다 하더라도 영어권 사용자만을 로마자 표기의 소비자로 간주하는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 실제로 문어 로마자의 사용 영역에 비해 구어 영어의 사용 영역은 훨씬 협소하다. 로마자의 음가는 한글처럼 일률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독법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로마자 표기를 영문자 표기로 대체한다면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자들은 우리말 로마자 표기를 읽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48] 예컨대 우리말을 외국어로 옮기는 일에 종사하는 번역자의 번역 현장에서도, 영어 이외의 언어가 목표언어라면 영문자 표기법을 우리말의 발음 표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49]

---

48) 영어의 표기법은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가 심각하여, '형태소적 표기'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이다. 그러므로 영문자 표기법을 사용할 경우, 김복문(1996)처럼 표기 체계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49) 이상으로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거의 밝힌 셈이지만,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한다. 앞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면, 정태충(2005: 40-45)에서 제시한 강한 제약 조건(음성 복원 능력, 교육 비용, 인식의 용이성, 기계적 자동 변환)과 약한 제약 조건(철자 복원, 실제 실현 비용, 최소 공간 점유, 일관성, 쓰기 비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최선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계공학과 전산공학의 관점에 입각한 제반 사항의 고려도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한편 필자도 현재로서는 국어의 발음 규칙을 강요해야 하는 전자법보다, 국어의 발음 정보 전달에 강점이 있는 전사법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음절 단위 전자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최고의 가독성을 갖는 음절 모아쓰기와 같은 한글의 여러 가지 장점을 십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3. 4.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는 3.2절과 3.3절에서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을 번역 현상과 관련하여 규정해 보았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첫째, 양자는 두 언어의 접촉 현상이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따라서 일종의 번역 현상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은 번역의 결과(외래어)에 대한 문자화 규칙 체계인 반면, 로마자 표기법은 그 자체가 한국어(구어)의 로마자 번역(문어) 과정이자 결과이다.

둘째, 양자에 개입된 번역 현상은 모든 번역이 그렇듯이 목표언어권에서의 의사소통 수행이라는 일정한 목표를 갖는다. 이러한 목표를 고려할 때, 외래어 표기법은 표기자(한국어 화자)와 독해자(한국어 화자)가 동일하지만, 로마자 표기법은 표기자(한국어 화자)와 독해자(외국어 화자)가 상이하다.

셋째, 두 표기법의 일반적인 표기 대상은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이다. 이들 단어는 의미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이름 속에 포함된 일반 의미 정보를 화용적 명시화 기법으로 부기해주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화용적 명시화 기법은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

넷째, 두 표기법은 모두 한국어 어문규범의 하위 집합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의 하위 규범이면서 표준어 규정의 표준어 사정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반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오직 표준어 규정 중의 표준 발음법과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4. 의의와 전망

우리는 앞에서 번역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을 다시 음미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두 표기법을 두고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논란의 해결을 위해 우리의 논의가 기여한 바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는 우리의 논의 결과가 이들 두 표기법 체계에 대해 갖는 포괄적인 의의를

www.kci.go.kr

정리하면서, 아울러 이들 표기법이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해보기로 한다.

4. 1. 외래어 표기법의 발전적 축소

외국어가 한국어에 들어와서 외래어 표기로 정착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확인된 외래어 표기법의 본질은 번역 결과(외래어)의 문자화 규범이었다. 구어든 문어든 한국어의 문맥에서 외국어 단어를 사용할 때 한국어 화자는 의사소통 욕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주어진 외국어 단어를 한국어에 맞게 한국어의 어휘 체계로 들여오게 된다. 외래어는 바로 이와 같은 번역 과정을 통해 산출된 단어이며, 외래어 표기법은 발음 상태로 존재하는 이 외래어를 문자화하는 표기 규범이다.[50] 그러므로 외래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래어의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외래어의 형태만 결정되면 문자화는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번역을 거친 외래어의 표준 발음을 조사하고 또 결정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된 관심사로 부각된다. 다시 말해서 외래어 발음의 실태 조사를 기초로 한 국어심의회 관련 분과의 외래어(표준 발음) 사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의 상호 관계가 효율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외래어 표기법이 차지하는 위상은 표준어 발음과 한글 맞춤법의 관계에서 모종의 암시를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미처 형태의 고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재적 외래어의 표기 형태를 한시적으로 결정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

4. 2. 로마자 표기법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

외래어 표기법이 번역을 거친 외래어 발음 형태의 문자화를 담당하는 단순한 표기 규범이라면, 로마자 표기법은 그 자체가 번역의 과정 내지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의 번역 과정은 우리말과 글을 모르는 외국어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한국어 단어의 음성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현행 표기법이

50) 물론 문어 텍스트에서 해당 외국어를 처음 보고 역시 문어로 옮겨온 경우, 곧 처음부터 문자 대 문자 번역인 경우는 문자화 과정이 잉여적이다.

www.kci.go.kr

선택한 전사법 원칙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로마자 표기법의 실제 운용을 고려하면, 표기의 소비자(독해자)는 외국인이지만 표기의 생산자(표기자)가 한국인이므로 한국어 화자의 언어 감각에 맞지 않는 유성과 무성의 구분 등이 폐지된 것도 적절한 조처였다. 이 밖에 정보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산 처리에 부담이 되는 구분기호를 없앤 것도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유연한 태도였다. 붙임표의 용법이나 영문자 표기와의 구별 등 일반인의 사용상 편의를 위해 손을 보아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 눈에 뜨이지만,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대체로 최선의 결론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향후에 전개될 고도의 정보화와 기계화의 물결을 염두에 둔다면, 표기 자료의 전산 처리가 수월하고 한글의 갖가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자법에 대해 미래지향적 견지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맺음말

우리는 학계와 일반 사용자들에게서 적잖은 비판을 받아온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문제의 발전적 해결을 위해, 이들 표기법을 한국어의 어문 규범이라는 틀 안에서만 보던 기존의 관점을 수정하여, 이들 표기법이 기본적으로 번역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물론 이들 표기법을 점검하는 관점이 변화했다고 해서, 기존에 제기되었던 이들 표기법의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이들 표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견해를 집약하여 보다 나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앞서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1)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 어문 규범에 속하면서도, 표기 대상 언어와 표기 수단 언어가 다르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종의 번역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2) 이들 표기법의 성격 규명에 번역의 관점을 도입한다는 것은,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개념을 원용하여 표기 대상과 표기 결과를 분리하여 관찰하고,

www.kci.go.kr

표기 행위를 일정한 의도를 갖는 목표지향적 행위로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3) 두 언어 사이에 접촉이 일어나면, 이들 언어 상호 간에 번역 현상이 발생하다. 그 단계는 영 번역과 음성 번역 및 의미 번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두 표기법의 역할과 관련된 것은 음성 번역이다. 음성 번역의 대상이 되는 단어는 의미 번역이 불가능한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이다.

(3)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 단어가 한국어에 들어와서 번역을 거친 형태(외래어)를 문자화하는 표기 규범일 뿐이다. 철자를 통한 번역인 경우에는 문자화 과정이 잉여적으로 적용된다.

(4)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자(사용자)와 독해자는 모두 한국어의 화자이며, 표기 대상이 되는 단어에는 고유명사(잠재적 외래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5) 현재 표준 발음법에는 외래어의 표준 발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유어와 한자어에 적용되는 표준어 사정 원칙이 외래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관련 규범의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중에서 제2항과 제4항은 불필요하다.

(7) 지명 표기에서 지명에 포함된 일반 의미 정보를 표기에 덧붙여주면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화용적 명시화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 단어(발음)를 로마자(철자)로 옮기는 음성 번역의 과정과 결과이다.

(9) 로마자 표기법과 한자 차자 표기법은 외국어의 문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전자는 외국어 문맥에서 사용되고 후자는 한국어 문맥에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은 번역이 되지만, 한자 차자 표기법은 (언어 간) 번역이 아닌 (동일언어 내) 표기이다.

(10) 로마자 표기를 통해 외국인들이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우리말 단어의 음성 정보이기 때문에, 전사법을 택한 현행 표기법의 기본 태도는 타당하다.

(11) 로마자 표기법의 생산자(표기자)는 한국어 사용자이고, 소비자(독해자)는 외국어 사용자이다. 그러므로 로마자 표기법의 체계를 구성할 때, 한국인의 언어 감각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국어 알리기에는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후자의 경우를 고려하면 로마자 표기법 체계를 결정할 때 한국어

www.kci.go.kr

의 음운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붙임표를 행정구역 단위와 음절 구분 및 이름 표기에 사용하고 있어서 기능부담량이 과도하다. 이는 특히 표기의 전산 처리에 장애가 되므로 해결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14) 외래어 표기법에서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화용적 명시화 기법을 원용하여 지명에 포함된 일반 의미 정보를 부가해주면 독해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때 로마자 표기와 영문자 표기는 시각적으로 구분되어 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교통안내 표지판 등에는 영문자 표기와 로마자 표기가 뒤섞여서 혼란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복문. 1996.『한글의 영어발음 기준 로마자 표기법 이론과 실제』. 서울: 무역출판사.

김세중. 1996.「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비판 분석」,『새국어생활』 6권 4호. 161-174. 국립국어연구원.

_____. 2000.「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경위」,『새국어생활』 10권 4호. 5-18. 국립국어연구원.

김완진. 2007.「표기법 반생 - 국어심의회 활동 회고」, (유인물, 제2회 언어정책 토론회 발표, 6월 29일). 국립국어원.

김정우. 2002.「번역의 관점에서 본 국어 외래어 표기법」,『국제어문』 25집. 173-199. 국제어문학회.

김하수. 1999.「한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배달말』 25. 247-259. 배달말학회.

민현식. 1999,『국어 정서법 연구』. 서울: 태학사.

양병선. 2000.「국어의 영문표기 및 로마자표기에 관한 제언」,『번역학연구』 1권 1호. 145-167. 한국번역학회.

www.kci.go.kr

_____. 2001.「언어간 음자번역으로서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연구: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언어학』9권 3호. 25-45. 대한언어학회.

유만근. 2000.「종전 로마자 표기법의 이론과 실용상 문제점」,『새국어생활』10권 4호. 35-49. 국립국어연구원.

유명우. 2000.「한국의 번역과 번역학」,『번역학연구』1권 1호. 229-248. 한국번역학회.

이익섭. 1997.「로마자 표기법의 성격」,『새국어생활』7권 2호. 5-26. 국립국어연구원.

이홍식. 2001,「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성심어문논집』23집. 123-148. 성심어문학회.

임동훈. 1996,「외래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새국어생활』6권 4호. 41-62. 국립국어연구원.

임홍빈. 1996,「외국어 표기의 역사」,『새국어생활』6권 4호. 3-40. 국립국어연구원.

전홍식. 2004.「국어 로마자 표기 원칙의 언어 어문적 문제점과 사용 실태 연구」,『언어과학』11권 2호. 219-236. 한국언어과학회.

정희원. 1997,「역대 주요 로마자 표기법 비교」,『새국어생활』7권 2호. 27-43. 국립국어연구원.

_____. 2000.「새 로마자 표기법 특징」,『새국어생활』10권 4호. 19-34. 국립국어연구원.

정태충. 2005.『음절 위주의 정음로마자 표기법』.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Baker M.. 1998.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Song, Yo-In. 1975.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Seoul: Dongguk U P.

www.kci.go.kr

[Abstract]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and Romanization of Korean From the Viewpoint of Translation

Kim, Jeong-Woo
(Kyungnam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shedding light on the solution of unsettled issues around two Korean written norms,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and Romanization of Korean, by introducing new viewpoint of translation. The results discussed so far are as follows: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abbreviated KOL, hereafter) is mere a written system to make loanwords, which are translated into Korean from foreign languages, spelled, not to dictate their phonetic forms. (In case of spell-to-spell translation, KOL works vacuously. The user (writer) and the reader of KOL are all Koreans.

The Korean Standard Pronunciation doesn't provide any regulation for loanwords. Thus, the related written norms should be revised in their detailed parts so that the basic principles to appraise standard words be applied to loanwords in the same manner. Additionally, the pragmatic explicitation by revealing and adding general meaning contained in place names, to their translated phonetic forms, is helpful for readers to understand its meaning more clearly.

The Romanization of Korean (abbreviated RoK, hereafter) is regarded as a kind of translation process or its product to render phonetic forms of Korean words into Romanized forms. Though sharing common character to express Korean by foreign symbols, Chinese characters or Roman alphabets, with

www.kci.go.kr

Chinese-character-borrowed written system in ancient Korean, RoK is used in foreign language contexts contrary to Chinese-character-borrowed written system having used in Korean context. Therefore, the former could be considered as a translation process, while the latter, as a mere writing product.

The producers (user or writer) of RoK are Koreans and its consumers (reader) are foreigners using Roman alphabets. So RoK system should reflect Korean linguistic sense on its concrete contents.

In RoK system, hyphen is overloaded functionally, being used in more than one situation. This problem should be overcome for the efficiency of mechanic recognition and process of Romanized words. In such a very similar way as in KOL, the pragmatic explicitation could be introduced in RoK for the same effect.

▸ Key Words: Korean orthography of loanwords, Romanization of Korean, producer and consumer of written system, pragmatic explicitation

김정우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교수
kjwn@kyungnam.ac.kr
관심 분야: 번역이론, 번역사

논문투고일: 2008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7일

www.kci.go.kr